

# “순찰차 안보이네” 불법유턴하다 ‘딱 걸렸네’

### 교통법규 위반 단속 광주경찰 암행순찰차 함께 타 보니

“차량번호 XXXX번 검은색 K7 차량, 갓길에 정차하세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역 사거리. 상무대로 화정역 방면을 주행하던 K7 차량이 금지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순간이었다.

별점 30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는 명백한 중앙선 침범이다.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곧바로 은색 제네시스 G70 차량이 K7 차량 옆으로 따라붙었다.

운전자는 제네시스 차량이 유리창과 그릴에 경광등을 켜는 것을 보고서야 차량을 세웠다.

차에서 내린 광주경찰청 운서영 경감이 “광주경찰청 암행순찰차입니다. 중앙선 침범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하자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만...경찰 순찰차인 줄 몰랐습니다”고 했다.

운 경감은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와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법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고 계도한 뒤 순찰 활동을 이어갔다.

광주 경찰이 도심 도로 암행 순찰에 나섰다. 경찰 순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 대한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암행 순찰을 시작한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 단속에 들어간다.

도심 도로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간 암행 순찰차에 본지가 동승해 단속 현장을 돌아봤다.

외관상 일반차량과 구분 안돼 광주 모든 도로 24시간 순찰 법규 위반 시 사이렌 울리고 단속 이달까지 계도...다음달 본격 단속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감소 기대

‘암행순찰차’는 외관상으로 일반차량과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날도 암행 순찰 시작 후 한 시간 동안 도심을 돌아다니는데도, 암행순찰차를 미리 알아차린 운전자는 없었다. 이 때문인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오전 9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 순간 속도를 올려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내버스가 암행순찰차에 목격됐다. 버스 운전사는 암행순찰차가 건너편을 지나고 있는데도 순찰차인 줄 모른 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순찰차는 곧바로 경광등을 켜고 차량을 세웠다.

시내버스 운전사는 “순찰차인 줄 꿈에도 몰랐다. 깜짝 놀랐다”며 “죄송하다. 어디서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암행 순찰차가 보고 있는데도 황색 신호가 켜지는 중에 속도를 올려 앞차 꼬리를 물며 교차로를 빠져나가는가 하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히 차로를 바꾸기도 했다.

운서영 암행순찰차 팀장은 “암행 순찰차는 광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암행순찰차 직원(2인1조)들이 주행하며 교통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암행순찰 차량은 제네시스G70으로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불가능하다.

전 지역을 24시간 순찰한다. 순찰차엔 블랙박스 외에 캠코더도 비치돼 위반 사항을 채증해 사후에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투입으로 음주,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현재 증가세다. 지난 2019년 5만 4575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9710건으로 9.4% 늘어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암행순찰차 도입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율은 18.9%,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 감소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남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2018년 1968건, 2019년 5734건, 2020년 8885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만큼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서영 암행순찰차 팀장은 “언제 어디서든 암행 순찰차에 단속 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타운하우스 개발 투자 유도 수십억 사기 기획부동산 수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투기 열풍을 조장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타운하우스 건설로 인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치가 없는 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원을 가로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회사 관계자들에게 경북 구미시 황성동 일대 타운하우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했지만 지분 쪼개기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다며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회사가 경북 구미지역에 소유한 땅에 분양형 펜션 형태의 타운하우스를 지을 계획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타운하우스를 지어 이익금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부지도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규모는 70억원으로, 기획부동산 측에 속아 3.3㎡당 15만원 수준의 땅을 150~180만원 가량에 샀다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33건 전남경찰, 관련 기관에 통보

전남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관련, 33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19건(19명) ▲출입·집합금지 위반 7건(7명) ▲역학조사 방해 5건(5명) ▲진단검사 거부 3건(3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33건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까지 마무리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악의적·조작적 허위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지정, 운영중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 또는 유포한 25명이 검거됐고 관련 게시물 40건은 삭제 또는 차단 처리됐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 편의점 물품 강탈 사춘들 함평경찰, 2명 긴급 체포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평경찰청은 7일 새벽시간대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A(53)씨와 B(40)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사춘지간으로 이날 새벽 0시 20분께 함평지역 한 편의점에 와인 2병을 빼앗고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납치하려 한 혐의다. A씨 등은 감시차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여종업원의 신고로 광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동종 범죄 전력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연대 손 내밀다

오월단체·시민사회, 군부 규탄대회 모금운동·생필품 지원 등 결의 간담회 열고 연대기구 구성키로

“배우산다 빼와바제(미안마 국민의 뜻대로 살게 하라!)”

미안마 민주화운동이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미안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미안마 군부의 쿠데타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닮았다는 점에서 5·18단체들과 광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행동연대에 나서고 있다.

오월민주여성회와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는 지난 6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미안마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미안마 이주노동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만봉피 집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시위라는 뜻)로 열렸다. 미안마 민중들이 평화 시위시 사용한 만봉피 집회는 미안마 정부에서 금지했다.

이들은 “현재 미안마 시민들의 저항이 광주의 5·18과 닮은 꼴이며 죽음과 희생 등 오월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미안마 시민들에게 깊은 공감과 연대를 표한다”면서 “미안마 군부는 시민학살을 당장 중단하고 쿠데타 만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도 같은 날 오전 11시 5·18기념재단에서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 간담회’를 열고 ‘미안마 민주화운동지지 연대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5·18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불교·기독교·천주교) 등 10개 단체가 참석, 미안마 민주화운동 현황을 공유하고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안마 시위 관련 슬라이드 상영, 재단의 미안마와 태국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 공유, 향후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와 연대를 위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지지 호소 성명서 발표 ▲중국,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의 릴레이 시위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 모금 운동 ▲미안마에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일 광주고속터미널(유스퀘어) 광장에서 열고 있는 미안마 군부 규탄 집회에 참석해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대한 생필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의료인 파견 촉구 등을 결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담회 종료 후 광주고속터미널(유스퀘어) 광장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미안마 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8일에는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족미술인협회 4개의 단체 대표가 미안마 민주화운동지지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후속 회의를 가질 예정이 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 문의. 010-3605-5000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 알(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